##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께서는 음악이 소음이 아닌 예술로 남기위한 청소년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셨다

4000여명의 대학생들은 바티 칸의 바오로 4세 회당에서 교 황님의 뜻과 일치되는 분위기 아래, 레오나르도 산드리 대주 교 님을 통해 교황께서 지향하 시는 바를 전해 들었다.

## 2005년 3월 21일

4000여명의 가까운 학생들이 오늘 11시 바티칸의 바오로 4세 회당에서 교황님의 메시지를 전해 듣기위해 38 차 로마 대학모임을 가졌다.

주제는 "문화 프로젝트:음악의 언어"

-교황님의 메세지는-음악은 다른 모든 예술 언어와 같이 인간을 하느님께 접근 시킨다. 그러나 동시에 예술은 인간, 사랑, 행복이라는 하느님의계시에 맞지 않게 바뀔 수도 있다.

교황님이 말씀하시길 "사랑하는 젊은 이 들이여, 이제 여러분은 음악과 문 화의 언어를 새롭게 하고, 소리로 표 현되는 쾌락에 빠져들지 않는 용기로 문화와 예술의 언어를 새롭게 해야겠 습니다." 오푸스 데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의 지향처럼 "평신도들의 소명 은 이 세상의 현실을 그리스도적으로 성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다"

교황님께서 말씀하시기를:

"사랑하는 학생들과 교수 여러분, 노 동과 학문은 항상 같은 지향을 두는 지속적인 기도처럼 되어야 하되, 매 일 새로운 노래를 부르듯 항상 새로 운 방법으로 다가서야 겠습니다.

이것은 매일의 따분한 기사 같은 일 상을 영웅적인 시로 표현하듯 바꾸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.

교황님의 메시지의 결론은 이러하다:

"이 성주간 안에서 성체성사와 고해 성사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동 정 성모 마리아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님께로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." 교황님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www.vatican.va에 있습니다.

모임에 참석했던 여러 젊은 학생들은 메시지를 전달 받기 전 교황님께서 1985의 참여 자료를 관람했다.

이 모임의 회장인 변호사Jennifer Wamuyu Gitahi는 "우리는 영상을 통해 20년 전 대학생 모임에 참여하셨 던 교황님의 기뻐 하시는 모습을 젊 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목적이였따."

덧붙여 말하기를

"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온 세계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찾는데 있어서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하는 교황님의 목소리가 되고 싶다."

오푸스 데이 단장 주교 하비에르 에 체바리아도 이 모임에 참여를 원하셨 다.

UNIV란 무엇인가?

## UNIV모임은

UNIV 모임은 ICU (대학 연합체) 에서 주관하며 1968년도에 Opus Dei 의 창시자이신 성 호세마리아 에스크리 바로 인하여 시작 되었다. 그때부터 바오로 6세 교황님으로 시작하여 오늘날의 요한 바오로 2세에 이르기까지 교황님께서 직접 모임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맞아 주셨다. 교황님들의 메시지는 www.icu.it/univ 에서 찾아볼 수 있다.

이 모임은 30여 개의 이탈리아의 대학과 200여 개의 전 세계의 대학의학생들로 구성 되었다. 이 학생들은일주일 동안 ICU 에서 설정하는 주제에 대하여 숙고하며 로마의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사에 참여한다 (회담, 전시회, 토론, 연구회 등등). 올해의 주제는 "문화 프로젝트: 음악의 언어"이다. 37차례 이루어졌던 예전 모임의 주제와 중요 자료는www.icu.it/univ 에서 찾을 수 있다.

ICU 의 총무이자 이번 모임의 총책임 자인 Carlo De Marchi 는 "교황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목표의 정점이 되 며 이번에도 교황님의 말씀을 되새기 는 한 주가 될 것이다" 라고 말했다.

오푸스 데이는 전체 프로그램 외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여 러가지 활동을 주관한다. UNIV 모임 은 로마 도시에 묻혀 있는 초기 교회 역사의 발자국을 되짚을 수 있는 기 회도 제공한다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gyohwang-yohan-baoro-2seggeseoneun-eumagi-soeumi-anin-yesulro-namgiwihan-ceongsonyeon-undonge-hwalryeogeul-buleoneoheojusyeossda/(2025-10-29)